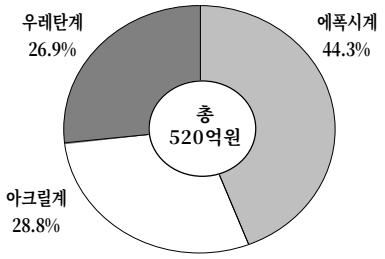
바닥재용도료 "고급화" 승부

에폭시계, 아크릴·우레탄계 추월 … 520억시장 50여개 난립

아크릴계를 비롯 우레탄, 에폭시계가 3파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국내 바닥재용 도료 시장이 꾸준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큰폭의 신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1액형도료가 수요시장을 형성하면서 고급화의 기반을 닦는 등 용도다변화에 따라 시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닥재용도료 시장은 520억원규모로 94년 450억원에 비해 15.5%이상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치는 건축용도료 전체시장규모 4000억원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비 또한 매년 2~3%정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재용도료 시장구성비



자료) CRI

바닥재용도료 가격현황(1995.12월 현재)

(단위: 원/Kg, %)

구 분		1994	1995	상승률
아크릴계		2,070	2,300	11.1
에폭시계	방막형	3,360	4,000	19.0
	후도막형	3,030	3,600	19.0
우레탄계	연질·경질	2,880	3,000	4.0
	고경질	3,300	3,400	3.5

자료) CRI

이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타 건축용도료에 비해 물량자체가 최소 두배이상 들어가는데다 최근 고급화추세가 이어지면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바닥재용도료 20Kl가지고 2평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타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현황을 보면, 건설화학과 고려화학 강남화성, 대한페인트, 삼화페인트, 우진페인트 등 주요 건축용도료 생산기업을 비롯한 50여개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건설화학을 비롯한 선발기업 8개기업이 90%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기업은 10%의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바닥재용도료 시장은 원료면에서 아크릴계와 우레탄, 에폭시계로 나뉘어지며, 현재는 에폭시계가 범용에 사용되는 아크릴계와 야외경기장에 사용되는 우레탄계를 제치고 선두를 지키고 있다. 국내시장 520억원 가운데 에폭시계가 230억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크릴계가 150억원으로 28.8%, 우레탄계가 140억원으로 26.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폭시계는 공장, 주차장, 기계실 등에 사용되며, 우레탄계는 탄성이 요구되는 학교운동장 육상트랙과 각종 경기장바닥용으로 사용된다. 또 아크릴계는 아파트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 기존 범용시장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바닥재용도료 시장은 최근 우진페인트가 1액형도료(94년 NT마크 획득)를 개발,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섬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얇은막을 특징으로 하는 방막형타잎의 1액형도료는 주원료와 경화제를 섞어 사용하는 2액형에 비해 물성면에서 균일성과 작업성, 하도자체가 필요없는 신속성으로 인해 용도가 같은 에폭시계를 꾸준히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액형 바닥재용도료는 경화제가 따로없이 대기중의 수분과 반응해 경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환경친화력이 상당히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5년 수요는 월 8000Kl로 매년 7~8%정도 에폭시

계도료를 대체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닥재용도료 가격은 95년12월 아크릴계가 Kl당 2300원, 에폭시계는 방막형 4000원, 후도막형(무용제) 3600원으로 94년대비 아크릴계 11.2%, 에폭시계 1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레탄계는 연질 · 경질이 3000원, 고경질이 3400원으로 94년대비 4% 상승했다.

<화학저널 1996/1/15>